

## 李退溪와 日本의 儒學\*\*

難波征男\*

### I

1169년(乾道五), 40세의 朱子는 宋學을 집대성하여 정론을 확립하고, 그 결과, 友人에 서간을 보내어 지금까지의 사상과 見識을 자기 비판하고 있다. 朱子學의 탄생이었다. 李退溪나 일본의 山崎關齋가 중시한 朱子의 소위 定論·未定論이란 이러한 것을 가리킨다. 宋學은 朱子學의 선구를 담당한 송대의 程明道·伊川兄弟, 楊龜山, 羅予章, 李延平等이 대표라 할 수 있는 신유교로 불교에 대항해서 유교의 부흥을 설교하고 또 漢唐의 訓言古學的 유교를 부정하고 스스로 聖人이 되는 것을 지향하는 학문이었다. 신유교의 집대성이 朱子學인 것이다. 朱子學은 자기를 유교적 성인으로 형성하는 학문이다. 그 학문수양은 各人 평등으로 선천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聖人性을 각성하고 그의 자력경생의 생명력으로 자기를 완성시키기 위한 실천이며 자기를 완전하고 圓滿無碍한 성인으로 자기변혁을 위해 소위 「자기를 위하는」 실천에 있다. 따라서 그것은 성인이란 무엇인가를 방관자적으로 해석하고 그의 지식을 암송하는 樣의 소위 訓詁記誦의 學이 아니고, 더구나 과거를 위한 수험교재가 아닌 것이다. 여기에 신유교가 한당의 훈고학적 유교를 부정하는 근거가 있다. 그렇다면 朱子學은 何故로 不立文字, 心の轉迷開悟에 따른 成佛을 說하는 불교에 대항해서 배불을 주장하는 것일까. 불교는 隨時隨處에 主가 되어 自在無碍한 절대자아의 확립에 精勵刻苦하나, 거기에

\* 福岡短대 교수

\*\* 퇴계학 부산연구원, 『퇴계학논총』 창간호(1995) 게재논문

형성되는 인간성은 「出家」, 「出世間」의 彼岸, 즉 인간사회의 여러 관계를 단멸시킨 피안에 출현한다. 소위 「天上天下 唯我獨尊」의 我에 있었다. 사회성을 단멸시킨 인간의 자유에 있다. 신유교는 인간을 자연의 一物로 인정하여 인간의 사회성을 인간의 본성으로 생각하고 그 사회적 여러 관계를 중시한다. 여기에 신유교가 排佛을 주장하는 근거가 있다. 「禪家の 俠」이라 일컫는 大慧宗杲의 弟子開善道謙에게 입문한 朱子가 유교에 開眼한 계기는 「氷壺水月の 瑩徹하여 瑕없음과 같다.」고 평받는 인품인 이연평의 지도였다. 연평은 「默坐해서 心을 澄게 하고 희노애락이 아직도 발하지 아니한 이전의 기상을 정결하게 하라.」고 논하고 있다. 이 기상이야말로 朱子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이며 유교적 성인의 기상이다. 그런데 朱子와 연평의 교섭은 「延平答問」에 평술되어 있으나 江戸 朱子學의 개조 藤原惺窩·林羅山이 불교에서 신유교로 回心하는 중대한 계기는 李退溪跋朝鮮刊本の 「延平答問」을 숙독한 데 있음은 흥미깊다. 朱子는 성인형성을 인도하는 경서로서 四書を 선정하고 구체적 성인, 즉 이상적 인간의 실천목표로서 「大學」의 三綱領 八條目を 제시하였다. 또한 後年, 朱子는 「白鹿洞書院揭示」를 정해서 그 중에서 五倫五常, 學問思辯篤行的 학습순서, 修身·處事·接物의 要體를 제시하였다. 여기에 성인을 지향하는 朱子學의 학문이나 교육은 어찌 되어야 하는가가 명백히 제시되고 있다. 실은 이러한 「揭示」를 퇴계가 「孔門의 遺意, 先王의 教法」이라 높이 평가하고, 퇴계에 共鳴한 山崎闇齋 및 그의 문하의 淺見綱齋 등에 의하여 일본의 교육사상사에 다대한 영향을 미치어 일본인의 규범의식은 이 「揭示」를 통해서 양성되어 온 것이 많다고 말할 수 있다.

## II

朱子의 저술이 일본에 전래한 것은 鎌倉 초기로 1200년 朱子가 死沒한 전후였다. 육지로 연결된 조선에 전래하기 보다 90년 일찍이 일본인

은 朱子와 동시대에 朱子學에 접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용태도가 소극적이었던 까닭에 일본 朱子學이 朱子學 독자의 활동을 개시하기 까지는 약400년 간의 준비기, 요람시대에서 육성시대를 경과하지 아니하면 안되었다. 전래당초, 그의 수용태도가 소극적이었던 원인의 제일은 鎌倉·室町 幕府가 宋의 禪學을 지지하고 신봉하고 있었던 것에 있었다. 鎌倉·室町時代의 정치·문화의 지도자의 태반이 불교적 교양과 사상의 소유자였다. 排佛을 기조로 한 朱子學은 阿部吉雄 박사에 따르면 「禪學을 돕는 의미에 있어서 유용하다고 하는 인식에 머물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간, 宋에의 유학생이나 元朝支配에서 도피하여 일본에 귀화한 중국인들에 의해 朱子の 저술이 점차 전래되어 소개되었다. 그러한 것은 사상보다도 오히려 문학작품으로서 호감을 받아 오다가 이윽고 五山에서는 儒佛一致, 儒釋不二의 입장에서 연구가 심화되고, 또 神道解釋에도 朱子の 철학사상이 원용되게 되었다. 漢學의 清原家도 新古二注의 절충학이라는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시키게 되었고, 1481년에는 「大學章句」가 간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총합적으로 말하자면 이 시기의 朱子學은 독립의 사상학문으로서 그 자신의 연구가 진보된 것이 아니고, 漢學과 佛敎·神道研究를 심화시키는 데 그것들의 부수적 역할을 담당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 III

일본 朱子學이 독립선언을 표명한 상징적인 사건은 1600(慶長五)년, 藤原惺窩가 德川家康을 알현하였을 때, 불교의 승복을 벗고 유복이었던 深衣道服을 입고 나타난 일이다. 이 전후부터 일본 朱子學은 갑자기 발흥하여 융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나 그 개조는 惺窩, 林羅山, 山崎闇齋의 3者일 것이다. 3者에 공통되는 것으로서는 朝鮮國使와의 친교와 朝鮮刊本の 정독을 통해서 조선의 朱子學문화를 수용하고 특히 李退溪

의 저술을 숙독하여 자기의 유교사상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阿部吉雄박사는 「日本朱子學と朝鮮」 속에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무릇 조선인으로서의 李退溪 이상 우리나라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은 사람은 他에 또 없으리. 藤原惺窩·林羅山은 공히 李退溪의 「天命圖說」을 읽고 「아무 곳에서나 才가 생할소냐」라고 말하여 통절히 그의 學才를 감탄하였으나, 山崎闇齋에 이르러서도 李退溪의 거의 전 저술을 읽어 그의 학설사상을 높이 평가하고 조선의 제일인자라 정하고 그야말로 朱子의 高弟에 틀림이 없다고 하여 존경하였다. 따라서 闇齋의 門流에서는 李退溪를 적지 않게 존경하고, 朱子學의 정맥은 李退溪를 거쳐 山崎闇齋에 전해진다고 하는 일종의 도통설마저 생각하게끔 되었던 것이다. 또한 闇齋보다 약간 뒤늦게 熊本에 大塚退野라 하는 사람이 나타나 매우 李退溪에 傾倒하였으므로 熊本藩의 학풍에는 李退溪 존신의 풍조가 전해져 明治의 元老, 元田東野 등도 진심으로 李退溪를 존경하였던 것이다.

熊本の 大塚退野는 후술하기로 하고, 惺窩·羅山·闇齋가 퇴계의 책을 숙독하고 朱子學 발흥운동에 참가하는 과정은 각각 달랐다. 선승이었던 惺窩는 來日한 朝鮮國使의 金鶴峯, 許山前과 詩文의 贈答을 통해서 유교에의 계발을 받았다. 학봉은 퇴계문하 삼걸의 일인이며 山前은 퇴계문하 삼걸의 일인 柳希春의 제자였다. 나아가 退溪附跋朝鮮刊本 「延平答問」에 감동하고 羅山과 일본군 포로가 되었던 姜沆과의 친교로 인하여 불교에서 朱子學로 회심하게 된다. 惺窩는 羅山으로부터 朱陸折衷의이라고 비판을 받으나 그 후 제자가 된 羅山에게서 「延平答問」을 빌리고 羅山으로부터 퇴계의 「天命圖說」을 빌려서 읽었다. 羅山은 처음에 惺窩와는 다르게 신유교의 문헌을 독습하고, 21세 때 「論語集註」의 강연을 폈다. 陳建의 「學菴通辨」에 共鳴하고 이단을 비판하고 朱子學 一尊主義를 주장하였다. 羅山の 朱子學은 「四書大全」, 「五經大全」을 기초로 하여 羅整庵의 「困知記」를 숙독하고 있다. 박학다식을 인정받게 되어 德川將軍 3代의 측근으로서 활약하고 그의 직권으로 新渡來한 朝

鮮刊本을 읽을 수가 있게 되어 퇴계의 「天命圖說」 중의 四端理發·七情氣發說에는 특히 주목했다. 朱子學 보급에 공헌함이 컸으나, 幕府가 朱子學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것은 羅山の 歿後, 寬文(1660년)이후였다. 闇齋는 土佐에서 野中兼山·小倉三省 등과 朱子の 서를 강구하고 25세에 僧籍을 이탈하여 朱子學에 회심하였으나 퇴계의 저술을 거의 독과하고 「大學章句」의 三綱領 八條目, 「白鹿洞書院揭示」의 五倫五常, 「大學或問」의 居敬窮理, 存養의 중시는 대략 그 과정에서 형성되었던 것 같다.

퇴계와 闇齋의 相同點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朱子를 독신하고, 불교·육왕학·朱陸折衷學 등을 이단이라 하여 배척하다. (2) 朱子의 定論과 未定論, 精疎를 세밀히 분별하여 학습하다. (3) 體認自得과 存養에 따른 「爲己」의 學을 실천하다. (4) 도학을 제창하고 求道에 철저하다. (5) 朱子學의 민족화, 口語化를 실행하다. 등. 다음에 상이점을 거론하면, 퇴계가 「心經附註」를 尊奉하는 데 대하여 闇齋는 그것을 비판하고 있다. 또 闇齋는 獨自의 神道를 說하였으나 퇴계는 朱子一尊主義를 설하고 있었을 것이다. 闇齋가 퇴계를 중히 여겼으므로 崎門에서는 퇴계학의 학습연구를 열심히 하여 崎門三傑로 말하자면 佐藤直方派가 가장 퇴계학을 尊奉하고 그 계통의 稱葉迂齋·默齋 父子는 특히 열심히 하였다. 淺見綱齋의 「白鹿洞書院 揭示考證」은 퇴계의 영향이 현저하였다. 三宅尙齋派로 부터는 楠本端山·碩水 兄弟가 나와서 퇴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 IV

九州熊本에 17세기로부터 19세기에 걸쳐서 퇴계를 존신하고 그의 학을 스스로 實學이라 칭한 熊本實學派가 흥하여 幕末 維新期에 걸출한 인물을 산출시키고 있다. 그 학파는 大塚退野에서 시작되어 藪愼庵·孤

山父子, 平野深淵, 森省齋를 거쳐 橫井小楠, 元田東野에 이른다. 小楠은 幕末, 幕府側의 公武合體를 추진시킨 실력자였고, 維新後는 明治정부에 참여하여 활약했다. 東野는 明治天皇의 侍講이 되고 「教育勅語」의 草案者의 일인이었다. 態本實學의 사상에 대하여 楠本正繼 박사의 「大塚退野를 비롯한 그의 학파의 사상- 態本實學思想의 研究 -」에 상세히 논하고 있다. 退野는 처음 양명학을 믿고 있었으나, 퇴계의 「自省錄」을 읽고 程朱學의 진의를 이해하고 「퇴계가 없었다면 朱子の 微意는 不明하여 俗學이 되어 버렸을 것이리라.」고 숭하고 俗學이 一線을 劃하였던 眞의 朱子學에 뜻을 두고 퇴계의 「朱子書節要」를 숙독하는 중에서 自得開悟하는 바가 있었다. 그것을 實學이라고 칭하였다. 실학이란 무엇인가? 실학은 본래 體認自得하는 것으로, 필설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기는 하나 楠本 박사는 「心の 공부의 上에 立하는 絶실한 학문, 人間 공동생 활의 원리를 구하는 학문만이 실학」이라 설명되고, 그 요소로서 (1) 老佛의 虛(非社會性)에 대한 것. (2) 眞實, 切實의 學. (3) 事象이 有하는 것에 따른 학문. (4) 經世의 學을 지적하고 있다. 그 위에 楠本 박사는 退野의 실학은 「(1)과 (2)의 의미로서 心を 尊하는 絶실하고 직접성을 持하는 학문이며, 人間社會의 生活에 卽回한 학문인 것이다. 退野實學은 内の 學, 心の 學, 人倫의 場을 떠나지 않는 絶실한 체험의 학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요컨대 사회공동생활의 원리인 실리를 체득하는 학문이 실학인 것이다. 그것은 「五倫은 身에 在한다.」고 인정하여 五倫五常의 실천주체인 자기신체의 경험에 노력하는 闇齋學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幕末에 이르러 態本實學의 小楠과 崎門 學者 梅田雲浜의 問에 朱子の 定論未定論의 문제, 즉 소위 心の 未發已發을 둘러싼 논쟁이 생기게 되었다. 小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本領은 仁義禮智의 性を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외다. 옛부터 聖賢人에 지시를 내리는 性命의 理와 사람들 心에 高有하고 있다고 까지 알면서 眞실로 高有하고 있는 것은 알지 못하느니라. 然이나 本心의 感發을 깨달아 과연 이 일과 心에 眞실로 合點함이 本領의 合點이라 云하는 것

이니라. 此가 合點되었을 때는 世間窮通 得失榮辱, 일체의 外欲實實度 外的 일에 思絶돼 此心을 번거롭게 하지는 않느니라. 여기서부터 舜何 人인가 我何人인가의 志脫然하게 起하여 此學問에 들어맞아 日用事實에 就하여 致 知方行的 修行이 이룩되게 되느니라.

고 하고, 또한,

本領合點의 工夫는 本心이 起하는 것을 察識하여 과연 이것이라고 하는 樣으로 平生心懸 하움이 此工夫인 것이외다.

라고도 하였다.

小楠과 친교가 있었던 雲浜은, 橫井君之未發上不可用力, 已發上可用力 之說은 是朱子未定說이외다.

라고 비판하였다. 즉 小楠이 인간고유의 생명의 理를 체득하는 데는 「本心の 起하는 것을 察識하라.」고 한 說은 소위 已發主義로서 朱子の 未定論에 있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未發 已發, 朱子の 定論 未定論을 둘러싼 문제에 있었던 것이다. 小楠과 동시대에 態本에 實學을 說하는 또 一人의 朱子學자가 있었다. 小楠보다 2세 年長의 月田蒙齋인 것이다. 蒙齋는 小楠보다 態本 實學黨의 정치운동에 좌절하여 態本을 떠난 그 해에 態本藩藩校時習館의 교사로 着任하여 態本城 내에 入하였다. 蒙齋는 崎門의 三宅尙齋系의 朱子學자였고 小楠이 窮理實用을 중시하는 데 대하여 居敬存養에 힘을 경주하였다. 小楠은 「(西洋에서도)따로 一種經綸窮理의 學을 발명하여 이것을 耶蘇의 敎에 附益하였다. 眞經綸窮理의 學民生日用을 利함이 심히 광대하여 先은 聖人의 작용을 得하였다.」(沼山對話)라고 말한다. 말하자면 소위 「全體大用」의 大用을 중히 여기는 것이다. 蒙齋는, 人은 모두 사물의 當然實行해야 할 理가 道에 있음을 說하나 사물존재의 근원의 도가 說하는 것을 不知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설은 본원이 없어 통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체, 中이

확정되어 비로소 知가 행해져 信이 체득되어서 처음으로 順이 성립되는 것이다. 어느 것이나 본체가 확립되어 비로소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기에 학문하는 자는 先을 本源을 窮究치 않으면 그것은 학문이라 할 수 없다.

또한, 心의 본체를 存養할 수가 있게 된다면 衣服을 着하지 않아도 暖하고, 食하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다. 향시 따뜻하여 春風 중에坐한 것과 같은 心地이다.(「蒙齋陋筆」)고 말했다. 蒙齋는 「本體의 外에 작용은 없고 작용의 外에 본체가 없다.」, 「程子の 소위 體用一源, 顯微無間의 語는 道의 內實을 상세한 것에 까지 명백히 설하고 있다.」고 확인한 위에 心의 작용보다도 本體의 會得에 중점을 置하는 것이다. 蒙齋는 그 체험을 다음과 같이 述하고 있다.

太陽將昇未升之間, 光輝躍然未發, 包含  
萬象之氣象, 可以形容道體之眞矣.

그런데 퇴계를 「朱子후의 제일인자」로 인정하고 퇴계학을 尊奉한 平戶의 楠本碩水是, 月田蒙齋를 방문하여 한편의 書를 示하였다.

開卷의 첫머리에 聖學의 傳이 있으나 一條一條 어느 것이나 自得되었던 것 뿐이었고, 道體가 服前에 존재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그것은 德性의 存養이 熟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窮理도 性과 天에까지 달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서 知와 行 등이 합치하여 一偏에 落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碩水는 이 때, 蒙齋를 崎門의 道統 계승자로 인정하게 되고 또 蒙齋와 碩水는 왕복서간을 많이 하였다. 蒙齋는 만년, 碩水의 형 端山의 學을 知하고, 師 千手旭山에게서 授受相傳하였다. 「中庸講義」, 「樽桑儒海」를 端山에게 증여하고 도통의 계승을 기대하고 있다. 熊本實學의 二潮流를 소개하였으나, 양자의 공통면은 퇴계를 존신하고 있음에 있다. 尙, 楠本正繼 박사는 端山의 令孫이고, 岡田武彦·福田殖 兩先生은 楠本正繼 박사의 제자이다.